

# 전.진.상 의원 호스피스팀의 말기암 환자 돌봄 체험 사례

A case of taking care of a patient with terminal cancer by Jeon.Jin.Sang Clinic Home Hospice



전진상 의원 정미경 원장

## 1. 말기 폐암 환자의 가정 호스피스 돌봄

환자는 42세 된 남자로 38세인 아내와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 중학교 2학년인 딸과 함께 살고 있으며 발병 전에는 인쇄소 일을 하고 있었다. 2004년 10월에 폐암으로 진단 받고 대학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았다. 2006년 2월, 뇌에 전이된 후에 방사선 치료를 받았으나 악화되는 양상을 보여 보존적 치료만 받아오다가 집에서 돌봄을 받기 위하여 본원에 의뢰되었다.

2006년 7월 말 경 본원 호스피스 팀(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이 첫 방문을 시행하였다. 환자는 비교적 편안해 보였으며 위급한 상황이 올 때 적절한 치료를 해주기 원하였다. 대학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간질 발작이 있었는데 성격이 변한 것처럼 폭력적으로 변하여 부인이 몹시 고생하였다고 한다. 진찰 상 환자는 얼굴에 부

종이 있었으며 좌측 팔 다리에 마비가 있는 상태였고 우측 폐의 호흡 음이 감소되어 있었다. 대학 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물로 통증은 조절되는 상태였다.

환자의 사회 경제적 상황은 빈곤한 상태로 환자의 발병 이후 부인이 집에서 전자 부품을 조립하는 일을 하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가족 자원도 결핍되어 있어 도움을 청할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하였다. 환자는 어린 시절에 입양되어 양부모 가정에서 성장하였는데 발병 당시에는 양부모와 단절된 상태로 지내고 있었고 부인의 가족도 지방에 있어서 가까운 친척이 없는 상황이었다. 사회복지사의 개입으로 지역 사회 자원, 특히 본당 차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평화 방송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도움을 받도록 하고 후원자를 발굴하여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었다.

8월 말까지 환자는 부인과 함께 외래로 내원하였으며



그 이후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1주일에 한 번 호스피스 팀이 환자의 집을 방문하였다. 9월 26일 이후 부터 통증이 증가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여 진통제 양을 증량하고 항정신병 약물을 투여하였다. 그 후에는 지속 피하 주입기를 장치하여 진통제와 진정제를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주입하였다. 이때부터 통증이 어느 정도 조절되고 수면도 호전되었다. 이후 이틀에 한 번, 또는 거의 매일 호스피스 팀에 의한 가정 방문이 시행되었다. 환자는 10월 18일부터 깊은 수면 상태에 빠져 10월 20일, 부인과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에서 임종하였다.

환자의 임종 직후에 호스피스 팀이 방문하여 옷을 갈아 입히고 깨끗하게 단장하여 가족들이 작별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었다. 본원 사회복지사가 장례를 도와주는 기관을 소개하여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었으며 성당 연령회에서 함께 해주었다.

현재 호스피스 팀이 부인과 자녀들에게 사별가족 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유가족은 함께 성당의 예비자 교리반에 나가면서 신앙 생활을 시작하고 있다.

## 2. 전.진.상 의원 가정 호스피스 소개

전.진.상 의원은 국제 가톨릭 형제회 회원들에 의해 서울의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하나인 시흥에 위치하고 있는 의료 사회복지 기관이다. 이 기관은 1975년 가톨릭 평신도 단체인 AFI(Association Fraternelle

Internationale) 회원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설립된 초기부터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방치된 환자들을 의료진이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서 돌보는 활동을 계속해 왔다. 가정 호스피스 활동이 점차 활발해지면서 1996년부터 본원의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호스피스 교육을 받기 시작하였다. 현재 호스피스 팀은 의사 2명, 간호사 3명, 사회복지사 2명, 자원 봉사자 20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본원에서 정기적으로 의료 봉사를 하는 중양 내과, 소화기 내과, 심장 내과, 정신과, 신경외과, 신경과, 방사선과 전문의들이 자문의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호스피스 돌봄을 받는 대상자에는 말기 암 환자 외에도 치유가 불가능한 신경계 질환자, 말기 상태의 심장, 폐, 간 질환자 등이 포함된다. 가정에서 돌봄이 이루어지므로 가족 가운데 환자를 주로 담당할 보호자가 있어야 하고 그 보호자는 호스피스 팀의 일원으로 함께 일하게 된다.

호스피스 환자가 등록을 하면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환자 상태와 가정환경, 가족 문제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치료와 돌봄, 교육을 제공한다. 환자는 24시간 전화 상담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언제나 의료진의 방문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등록 시 가족 중심의 의무 기록을 작성하고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사회 경제적, 심리적 환경을 파악하며 문제가 있을 때 이용 가능한 자원을 동원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환자와 가족은 의원의 낮 병실을 이용하여 치료를 받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전.진.상 의원에서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들이 일주일에 2회 정도 환자를 방문하여 여러 가지 필요한 도움을 주고 환자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환자의 사망 후에는 사별 가족 모임과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사별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기 위한 지지를 제공한다.

또한 전.진.상 의원에서는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의사, 간호사, 사회 복지사 등 전문가를 위한 교육 및 실습을 실시하고 있다.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들은 3회에 걸쳐 회 당 20시간 이상의 집중 교육을 받았으며 매월 정기 모임을 통해서도 필요한 교육을 받고 있다.



호스피스 환자가 등록을 하면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환자 상태와 가정환경, 가족 문제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치료와 돌봄, 교육을 제공한다.

환자는 24시간 전화 상담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언제나 의료진의 방문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호스피스 돌봄을 받는 대상자에는 말기 암 환자 외에도 치유가 불가능한 신경계 질환자, 말기 상태의 심장, 폐, 간 질환자 등이 포함된다. 가정에서 돌봄이 이루어지므로 가족 가운데 환자를 주로 담당할 보호자가 있어야 하고 그 보호자는 호스피스 팀의 일원으로 함께 일하게 된다.

